

2024  
JULY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  
**267**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 Open Doors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 요한복음 13장 35절 -

동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 에티오피아 - 인도 - 네팔

은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 좋을 때나, 힘들 때나\_모로코  
- 카다의 위험한 비밀\_아프가니스탄

- 여러분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_이집트  
-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절대 버림 받지  
않을 것입니다’\_이집트

박해와 선교현장

- 예멘 (YEMEN)

북한선교현장

- 이그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5)

Heart To Heart

-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에 초대합니다  
- 성경대학시리즈 (Mission Bible College)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4년 7월호 | 통권 267호 |  
등록번호-중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업)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황자경, 임훈희, 박인영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이정현,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섯별

##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 후원하기

###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목차

### 03 동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 에티오피아 - 인도 - 네팔

### 04 은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 좋을 때나, 힘들 때나\_모로코

- 카다의 위험한 비밀\_아프가니스탄

- 여러분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_이집트

-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절대 버림 받지 않을 것입니다'\_이집트

### 14 박해와 선교현장 - 예멘 (YEMEN)

### 20 북한선교현장 - 이그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5)

### 22 Heart To Heart

-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에 초대합니다

- 성경대학시리즈 (Mission Bible College)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 동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픈도어는 특별히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성도들에게 다가갈 결코 혼자서 아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살기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살아 남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에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비전은 가장 극심한 박해에 직면한 교회가 번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픈도어는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식량, 의약품, 트라우마 돌봄, 법적 인 도움, 은신처 및 학교, 그리고 기독교 문헌, 훈련, 자원을 통한 영적 지원과 같은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전세계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을 돕는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

### 에티오피아

(아래의 사진 참고) 데스타 알레무\*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 미움을 당하고 쫓겨나는 것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의 집과 사업이 불에 탔고 잿더미는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희가 집을 떠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 소유물은 파괴되었고, 저희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데스타와 그녀의 가족은 에티오피아 중부 Qibet 공동체에서 종교적 폭력에 휘말렸습니다. 90명 넘는 기독교인들이 도망쳤습니다. 데스타와 그녀의 가족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 덕분에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이 신자들 90명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데스타는 계속되는 불안과 고통으로 인해 오픈도어 트라우마 돌봄에 초대된 20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트라우마 돌봄 세미나에 와서 제 안에 무수한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겸손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박해를 받으셨는지 배웠습니다.”

데스타가 두려움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오픈도어 동역자님들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삶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저는 평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만 압니다.”

### 인도

2023년, 인도 마니푸르주에서 민족-종교적 폭력 사태가 발생한 이래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6,000 기독교 가정에게 식료품, 안전한 가옥, 의료 지원, 담요 배부, 모기장, 기구, 그리고 자전거와 같은 긴급한 필요들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50 가정 이상이 고정적인



소득을 벌 수 있는 소득 창출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약 30명의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 받았

고, 마니푸르 생존자들을 위한 문해력 학교 일곱 곳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400명 정도의 개인은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고, 2,2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박해 대비 훈련을 통해 수혜를 받았습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 이스투티\*가 말하기를, “저희가 이들을 만날 때 얼굴에 핀 웃음을 보는 것은 기쁨입니다. 저희가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들어줄 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들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기도와 도움, 그리고 지지를 통해 이들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되어 아주 기쁜 상황입니다.”

## 네팔



(왼쪽의 사진 참고) 무케시 샤\*는 2010년에 기독교인에 되었고, 2012년에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네팔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거나 개종시키는 것을 불법

으로 하는 헌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때부터 네팔에서는 박해가 증가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복음을 나누고 공개적으로 글을 배부하는 것에 있어서 열려 있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 어렵고 저희는 배교라는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비밀리에 복음을 나눕니다.”

이러한 도전으로 인해, 네팔에 있는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탄압을 견디는 기독교인들을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박해 대비 훈련을 제공해왔습니다. 무케시는 이 훈련에 참여한 신자들 중 한 명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주제들이 현재 상황에 매우 적절하고 그에게 많은 격려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저희가 믿음 위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를 축복해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네팔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 은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



## 종을 때나, 힘을 때나\_모로코

엘마흐디는 무슬림 배경의 신자이고, 신앙을 이유로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연구는 페이스북에 의해 촉진되어 엘마흐디에게 변혁적인 여정을 나타냈고, 2019년 이래 세례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아내로부터 신앙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국 그의 신앙을 알게되어 이혼으로 이어졌고, 그는 자녀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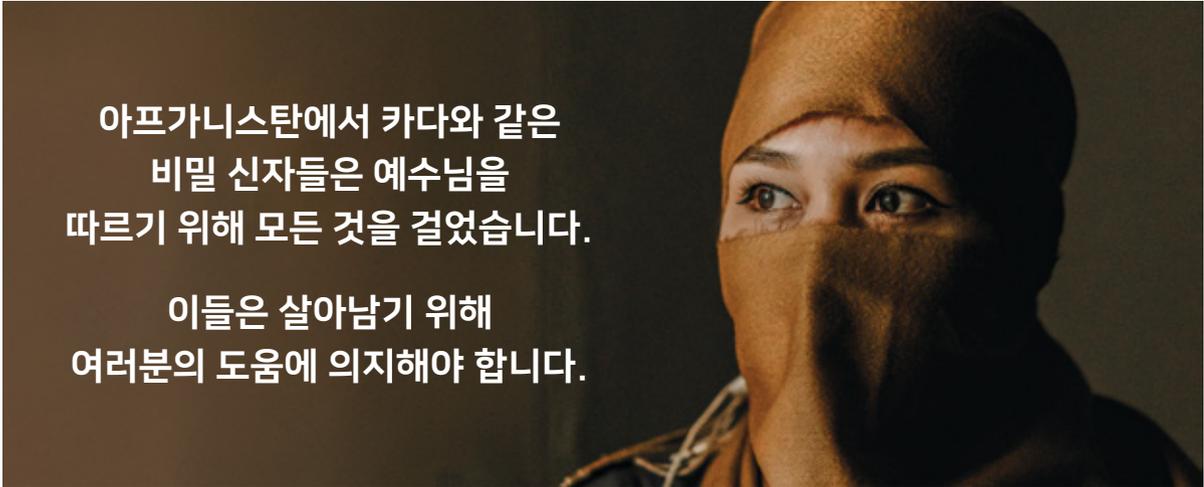
2022년 이래, 그는 이 같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에 대한 갈망과 애정, 그리고 적에 의해 조종 당해 이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9년 부터 함께 한 교회로부터 실제적인 지원과 일상 소통을 받고 있습니다. 엘마흐디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은 이러한 유혹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결과는 매우 힘들지만, 엘마흐디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가족 간의 유대감과 책임을 초월하는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같은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서, 엘마흐디는 자신의 갈망을 포기하고 주님에 뜻에 온전히 굴복하도록 하는 부르심을 압니다. 엘마흐디는 순종이 기꺼이 자신의 갈망을 내주고 믿음을 위해 어려움을 견디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는 것을 압니다.

엘마흐디가 믿음 가운데서 확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들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같은 도전적인 시간들 가운데서 엘마흐디에게 위로와 평안이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카다와 같은  
비밀 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에 의지해야 합니다.**

## 카다의 위험한 비밀\_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의 카다\*는 목숨을 잃을 수 있을 만큼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비밀을 나눕니다 - 그녀에게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카다는 가까운 직장 동료에게 아무 소개도 없이 조용히 이 책을 건네 받았습니다. 카다는 그것을 가방에 슬며시 밀어 넣고 집에 가져가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부부는 이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 만으로도 극심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처럼, 카다와 아산\*은 엄격한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궁금한 나머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발견한 것들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저희는 질문이 있었는데 함께 풀어갔고, 남편은 제가 선택한 길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대가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 탈레반 3년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위험합니다.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에 따르면) 국가는 1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2021년 여름에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이래 사태가 악화되었습니다.

## “저희는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은 이슬람을 떠나 그것이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망쳤고 남아 있는 신자들은 숨었습니다. 이들은 발각되면 체포, 고문, 심지어 죽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일 하는 오픈도어 파트너는 놀랍게도 교회가 성장하는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수십년 동안 전쟁과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들은 이들은 탈레반과 다릅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 요한복음 13장 35절

비밀 유지는 필수입니다. 오픈도어 파트너가 덧붙이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들로 하여금 은밀히 활동하며 동료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안전할 때 함께 모여 믿음을 지킵니다.”



복음은 닫힌 문들 뒤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카다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 **감당할 수 없는 대가**

그러나 아무리 조심을 해도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카다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 처럼...

카다와 예산은 세례를 받고 비밀 신자 무리와 연결되었습니다. 하루는 예산이 성경 공부 모임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카다는 그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고, 오싹한 두려움이 카다를 사로 잡았습니다.

이틀 후에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고문을 당하고 살해 당했습니다. 카다는 비탄과 고통에 빠졌지만 - 성경 말씀은 그녀를 살렸습니다.

“저에게 성경을 준 친구는 예산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울기를 그치고, 에베소서 6장을 읽고 예수님을 섬길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녀는 덧붙이기를, “저는 매일 예산과 얘기하곤 합니다. 이제 그가 떠났고, 저는 매일 밤 하나님께 얘기하곤 합니다. 저는 그분이 저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카다는 아침저녁으로 그녀의 믿음을 숨기며 위험한 비밀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녀는 다른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을 도우며 그녀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미망인이 된 카다는 직장 구하는 것을 도와줄 단체도 없이 실제적인 지원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비밀신자인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 전세계 교회의 사랑과 기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저희의 형제자매들을 돕는 것은 저희에게 달려있습니다.

## “예산이 떠나고, 저는 매일 밤 하나님께 얘기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는 성경, 제자훈련을 제공하고 카다와 같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과 세계 곳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필수적인 생계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믿음을 위해 모든 것을 건 기독교인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카다가 말하기를, “저희가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탈레반 정권 때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저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있어서 관련 있는 극심한 위험으로 인해 이들의 이름을 교체하고 재연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카다와 같은 비밀신자들에게 실제적인 원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 카다와 같은 비밀신자들을 도와주시겠어요?

### 기도해주세요

- 카다가 예산에 대한 상실을 비통해 할 때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 오늘 날 용감히 예수님을 따르는 카다를 비롯한 모든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호하심이 있도록.
-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있는 비밀신자들 가운데 힘과 용기를 채워주시도록.

### 선물해주세요

- 4만원 - 5명의 비밀신자들에게 성경을 선물하여 이들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8만원 - 비밀신자가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 12만원 - 10명의 비밀신자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 믿음 가운데서 굳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후원문의:

02-596-3171 / 010-7548-3171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카카오톡채널 상담

### 자동이체: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중등/결프  
(신청 시 가입한마디에 '비밀신자캠페인'을 기록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계좌입금:

중등 /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입금 시 입금자명에  
'비밀신자캠페인'을 기록해주세요)

# 여러분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의 남편이 그녀의 비밀 신앙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분노와 폭력으로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갈 뻔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사라는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배려는 이집트에 있는 비밀신자인 사라에게  
집과 교회 가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합니다.



발소리가 들렸을 때 사라\*는 눈을 감고, 손에 성경을 쥐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사라는 일년 동안 은밀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폭력적인 결혼 생활 가운데 불행하게 살았던 사라는 직장 동료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 기독교의 소망과 평안에 끌렸습니다.

사라는 이슬람에 등을 돌렸지만 - 이것은 대가가 따릅니다. "제 남편이 제 신앙에 대해 알게 된다면, 저는 거절, 박해, 그리고 심지어 이혼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롭고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발소리가 가까워질 수록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 학대 당하고 버림 받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 라시드\*가 직장에서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라시드는 방에 들어서면서 성경을 쥐고 있는 사라를 보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는 사라를 마구 때려 결국 입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라가 치료를 받는 동안 그는 두 자녀와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 “하나님은 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라는 비탄에 잠겼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이교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두려웠고,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웠고, 취약한 제가 두려웠습니다." 사라는 비밀 신앙이 알려지자 직장을 그만두고 해당 지역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배려가 사라에게 닿았고 그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사라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친구는 그녀를 오픈도어 파트너 시린\*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시린은 사라를 위한 가정교회와 집을 찾고, 집세를 해결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의 배려 덕분에 저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사라는 이제 15살이 된 큰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몇 년 동안 엄마를 찾았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인채로 사라는 행복했던 재회를 기억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기쁨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자비, 그리고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날, 사라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앙을 비밀리에 지켜갑니다. 그녀가 개종한 것은 극단주의자들에게 있어 여전히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라는 겉으로는 무슬림으로 살아가지만, 마음 속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며 - 여러분의 지지는 그녀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곳에 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 가명과 재연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 기도해주세요

- 사라와 그녀의 두 아들이 살아가고,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보호가 함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하나님께서 이집트 내 사랑과 평안을 찾고 있는 다른 무슬림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이집트의 비밀 신자들이 그들의 삶과 행동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영향력있게 나타내도록 기도해주세요.

#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절대 버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숨겨진 성경이 발각되고 젊은 이집트인 부부 라에프와 소손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는 이들을 구했습니다.

라에프와 소손은 - 여러분의 배려 깊은 도움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거절 당하고 홀로 있었습니다.  
이미지는 설명을 돕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이교도들이다. 너희들은 나를 기만했다. 너희들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

라에프\*와 그의 부인 소손\*은 끔찍한 위협으로 인해 겁을 먹었습니다. 그의 이집트 마을에서 이맘이자 광신적인 무슬림인 라에프의 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 격분했습니다. 그는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이들의 방에 들어가 비밀리에 가지고 있던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이들에 맞서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교도들이고,  
둘 다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

“너희들이 이 마을에 계속 남아 있다면 해를 입을 것이다!” 라에프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 3년 간의 비밀

라에프와 소손은 라에프의 부모와 함께 살았으며, 라에프는 아버지 소유의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이들은 삼년 전 소손의 형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의 이야기를 이들에게 나눠준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가정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라에프가 기억하기를, “저희는 성장과 변화의 여정 가운데 있었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가기 시작했죠.”

**“여러분을 통해 저희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이 발각되고 아버지의 잔혹한 협박이 메아리 친 그날, 라에프와 소손은 몇 안되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부부는 집도, 직장도, 그리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정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 ‘저희는 여러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 부부가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를 만났을 때이며 - 여러분의 지지는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저희에게 배풀어주시는 지지 덕분에 저희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지낼 곳을

찾도록 도와주셨고, 제가 다시 수입을 얻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28장 20절 -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상담을 통해 저희에게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해주셨으며 제자 모임을 통해 저희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해줄 안전하고 양육하는 공동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오늘날 라에프와 소손은 계속해서 두 개의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신자로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무슬림으로 말이죠. 이집트에서 이슬람교로부터 개종하는 것은 지속적인 위험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부부의 신앙이 공개적으로 발각되면, 이들은 차별, 폭력, 괴롭힘, 그리고 더 많은 위협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이들은 -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비밀 유지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 기도해주세요

- 라에프와 소손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매일의 어려움을 직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강화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이 부부가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힘과 확신을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전세계 가족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 비밀 신자들을 보살피며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카다의 비밀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그녀는 여러분을 신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카다\*는 위험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비밀 말입니다.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비밀이죠. 이슬람을 떠난 것이 발각되면 결국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카다는 지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고 자신의 비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 제자훈련, 그리고 실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전세계의 비밀신자들에게 힘을 보탬 수 있습니다.

**카다와 같은 비밀 신자들을 도와주시겠어요?**

**4만원**- 5명의 비밀신자들에게 성경을 선물하여 이들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8만원**- 비밀신자가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12만원**- 10명의 비밀신자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 믿음 가운데서 굳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후원문의:**  
02-596-3171 / 010-7548-3171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카카오톡채널 상담

**자동이체:**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중동/걸프  
(신청 시 가입한마디에  
'비밀신자캠페인'을 기록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계좌입금:**  
중동 /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입금 시 입금자명에  
'비밀신자캠페인'을 기록해주세요)

# WEEKLY

## Open Doors

한국오픈도어 모바일 주간 소식지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통해 매주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채널 추가하세요 +





#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기독교 박해지국

5 위

## 예멘 (YEMEN)



©Alamy

### 폭력과 압박의 정도



여섯 개 영역은 각각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 (6 × 16.7 = 100).

### 중요한 발견

예멘에 있는 교회는 주로 비밀리에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무슬림 배경의 개종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구금과 심문을 포함해) 정부당국, 가족, 그리고 배교자들을 죽음으로 위협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한다. 예멘의 부족 정체성은 이슬람 정체성과 아주 많이 얽혀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을 떠난다는 이유로 부족으로부터 극심한 지역사회 압박과 폭력에 직면한다. 무슬림과 결혼한 기독교 개종자들은 강제 이혼과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상실을 각오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전반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으나 긴급 구호는 모스크를 통해 현지 무슬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부되고, 이는 독실한 무슬림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예멘인 기독교인들은 더 취약하다.

# 예멘 (YEMEN)

## 국가 정보

지도자 : 라샤드 모하메드 알-알리미

대통령 지도 위원회 의장

인구 : 31,818,000 명

기독교인 수 : 소수 (오픈도어 추정)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전환 중



##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비율
기독교인	소수	-

출처 1

2014년, 후티 (시아파 무슬림 소수 집단)는 하디 대통령 정권의 경찰들에 좌절되어 군대와 동조해 수도 사나를 장악했다. 하디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했고 그 후 그를 복위 시키고, 국경을 보호하고, 예멘이 분열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대다 수가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역 경쟁 상대인 시아파 이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을 구성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군력으로 후티 쿠데타를 빠르게 패배시킬 것을 예상했지만 내전은 계속되었고 100,000명의 사망자와 250,000명의 실항민을 초래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인구의 80% 가까이 가난 속에 살고 있다. 전쟁 지역 안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슬람 국가 (IS) 및 알카에다 같은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은 그들이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에 처벌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집단들은 특히 취약하다.

1994년 헌법에 따르면 예멘은 권위주의적인 이슬람 공화국이며 샤리아 (이슬람 법)는 법의 주요 근원이다. Middle East Concern에 의하면: "신성 모독,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 비이슬람교의 전도는 금지되어 있다. 배교는 형사 범죄이며, 종교를 바꾸는 것을 거부하는 배교자들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무슬림과 배교자 사이, 그리고 무슬림 여성과 비무슬림 남성 사이의 결혼에 대한 금지를 포함한 이슬람 가족법이 적용된다. 비이슬람교 종교 단체들을 위한 공식적인 등록 절차는 없고, 정부는 여러 해 동안 비이슬람교의 예배당 건설을 인가하지 않았다."

보안을 위해 종교에 대한 WCD 세부 분석은 발표할 수 없다. 오픈도어는 기독교인 수가 '몇 천명'일 것으로 추정했다. 2015년에 지금의 내전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보통 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수 천명의 이주자들이 아덴과 사나에 있는 등록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들 기독교인 대부분은 위험한 상황 때문에 강제로 나라를 떠나야 했고, 일부 교회들은 뒤집어 엎어졌다. 현재 나라 안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토착민 개종자들이다. 이들은 가족들, 씨족들, 그리고 부족들에 의해 살해 당할 큰 위험에 처했다. 그리고 예멘에는 상당 수의 에티오피아 및 에리트레아 기독교인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예멘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위험하다. 남부와 같이 알카에다의 존재감이 강한 일부 지역들은 특히

<sup>1</sup>오픈도어 추정에 따름

위협적이다. 또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수니파 하디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보다 (예멘 영토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아파 후티가 통제하는 북부지역에서 더 많은 압박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독교 배경을 가진 이주 기독교인들과 연결된 정보원에 따르면, 그들은 다른 어떤 곳보다 후티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제약을 덜 경험한다는 것이다. 후티가 통제하는 지역은 심한 감시를 받고 모든 반대 의견은 철저히 억압당하고 투옥 및 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 국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거의 모든 서방의 국외 거주자들은 전쟁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나라를 떠났다. 인종 차별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뒤섞인 가운데서 남아 있는 국외 거주자 기독교인들은 사회로부터 위협과 극단적인 이슬람 운동으로부터 폭력에 직면한다. 그러나 그들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제 교회는 주로 현지인 기독교인

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 거주자 기독교인 범주는 현재 기독교 박해지수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월드와치리스트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 기독교 개종자들

예멘의 교회 중 최소 95%가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인 가족/지역사회/부족적 태도,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불처벌, 그리고 국가 (또는 실질적인 국가) 당국이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일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 개종자들의 취약성은 국내 도처에서 여전히 매우 높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월드와치리스트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 박해 및 차별의 주요 근원

### 이슬람의 탄압

예멘의 헌법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그리고 샤리아는 모든 법률제정의 근원으로 선언한다. 개종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고, 무슬림들은 개종할 수 없다. 예멘의 종족 정체성에서 이슬람이 핵심적인 부분인 반면, 후티,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AQAP), 그리고 IS와 같은 무장단체들은 금욕주의적인 형태의 이슬람을 시행하고자 한다. 그들은 이슬람 탄압의 주요 원인이고 기독교인들을 활발히 표적 삼고 살해했다.

### 씨족의 탄압

예멘 사회는 주로 부족적이고, 통치 면에서는 중앙 정부 당국이 보통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 이슬람 정체성은 민족 정체성과 뒤얽혀 있다. 많은 지역에서 부족 연장자들은 부족 법 및 관습을 실시하고, 이는 구성원들이 부족을 밖을 떠나거나 부족 밖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한다. 불복종에 대한 처벌로 죽음 또는 추방을 당할 수 있다.

### 독재정치

예멘은 2012년 이래 독재 하에 있었다. 갈등의 맥락에서 서로 적대하는 당파의 생존 본능은 강하다. 후티가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통치 당국에 의해 위협으로 간주되는 개인 또는 단체들에 대해 후티 행정부의 점점 더 가혹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었다. 이것은 계속되었고 소수 종교 공동체들의 구성원들을 포함한다.

###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그리고 서방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히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에 의한 지배가 결여되어 이들에 대해 범죄를 자행하는 사람들은 더 처벌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취약한 가운데 있다.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예멘의 가부장적, 이슬람적 맥락에서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가족에 수치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무슬림 배경의 여성 개종자들은 전화가 거부되고 집에서 고립될 것이다. 이들은 추가적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심지어 부족 또는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엄격한 무슬림과 강제 결혼하는 것은 젊은 개종자를 동조 시키기 위한 잠재적인 해법이다. 엄격한 가족 감시로 인해 여성은 기독교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이는 기독교인이 되는 여성이 더 적어지는 것을 야기했다.

여성에게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기독교 종교 자료, 가르침 그리고 의식에 대한 접근 제한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폭력 - 살인 /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 남성

계속되는 내전과 종교의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예멘에서의 삶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기독교인 남성들과 소년들은 민병대에 가담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다. 전쟁에 끌려가면 이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앓아가는 시간 때문만이 아니라, 훈련이 실시되는 고도로 통제된 이슬람 환경 때문에도 그들의 교육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로 개종한 남성들은 공공 영역에서 주로 압박에 직면한다; 이들은 직업을 잃고,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투옥을 당할 위험을 무릅쓴다. 따라서, 많은 기독교인 남성들이 나라에서 도망했다.

남성에게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일/직업/사업에 의한 경제적 괴롭힘
- 가정으로부터 강제 내쫓김 - 추방
- 동네/국가에서 강제 추방
- 정부에 의한 투옥
- 군대/민병 징집/양심에 반하는 복무
- 폭력 - 신체적

## 월드와치리스트 5년의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4	5	89
2023	3	89
2022	5	88
2021	7	87
2020	8	85

예멘의 점수는 89점에서 거의 바뀌지 않았다. 5개의 삶의 영역 모두에서 압박 점수는 전부 최고 점수 또는 그 가까이에 있다. 폭력은 동일한 정도인 5.9점에 머물렀다. 예멘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비밀리에 신앙을 살아내야 하는 무슬림 배경의 예멘인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들과 정부당국(공식 당국 및 국가의 삼분의 일에서 지방 당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후티 반군 둘 다)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에게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직면한다.



©Unsplash

## 보고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보안 상의 이유로, 세부 사항들은 이곳에서 발표될 수 없다.

### 개인영역

모든 예멘인들은 무슬림으로 간주된다.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 또는 지역사회에 의해 신앙이 발견되면 명예 살인 또는 신체적 폭력의 위험을 무릅쓴다. 극단적인 무슬림들에 의해 통제된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의 사적인 예배는 특히 위험 해졌다.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와 IS는 나라의 많은 부분을 통제한다.

### 가정영역

예멘 사회는 엄격히 무슬림이기에 가족의 명예에 수치스러운 모욕으로 여겨지는 개종에 대해 엄청난 가족 압박이 있다. 모든 기독교 의식과 기념 행사는 비밀리에 행해져야 한다. 자녀를 가진 무슬림 배경의 예멘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을 반드시 이슬람 기준에 따라 키우도록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는다. 부모들의 새로운 신앙이 발견되면 양육권을 상실할 위험이 높다. 탐탁찮아 하는 가족들은 흔히 보수적인 무슬림 배우자와의 중매결혼으로 젊은 개종자를 '바로잡고자' 한다. 더 이상의 거절은 투옥, 가족 구성원에 의한 '명예' 살인, 또는 이슬람 무장 단체들에 의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공동체영역

계속되는 갈등과 그 결과로 초래된 인도주의적 위기는 예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신앙이 발견된 새로운 개종자들은 종교를 바꾸도록 압박에 직면한다. 바꾸기를 거부하면 아무리 잘해도 투옥 또는 폭력을, 최악의 경우에는 살인에 처한

다. 집단 압박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정들과 더 통합되고 사생활이 더 어려운 농촌마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신앙을 숨기는 기독교 개종자들은 모스크에 참석하지 않거나 (덜 자주) 참석하기 때문에 덜 헌신적인 무슬림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식량과 원조 배부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린다.

### 국가영역

예멘의 형사법에 따르면,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배교 즉 사형죄이다. 고용에 있어서 경영자가 고용인을 기독교인으로 의심하면, 그는 사실상 승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멘의 많은 지역에서 법의 지배가 약한 것을 고려할 때 소위 '명예로운 범죄'라는 것을 포함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범죄의 가해자들은 불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널리 적용할 수 있는) 부족의 사법제도는 가정의 가장이 처벌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더 공식적인 체계에서는 이슬람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들을 엄청나게 불리하게 할 것이다.

### 교회영역

국외 거주자 기독교인 또는 (대부분 에티오피아 사람들) 난민을 섬기던 공식적인 기독교 건물 세 곳이(전부 예멘 남쪽 해안, 아덴에 위치함) 전쟁 중에 피해를 입었고 폐쇄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오로지 비밀스러운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종교 자료를 배부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고 그에 따른 처벌은 극심하다. 인도주의적 노력을 조직하는 교회들은 공격의 위험을 무릅쓴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 위반

예멘은 다음 국제 조약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협약 (CAT)
4.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5.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예멘은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은 개종을 철회하도록 국가와 사회로부터 압박을 받는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편향된 긴급구호에 시달린다 (ICCPR 제26조)
- 기독교 개종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개종으로 인해 이혼에 직면하고 자녀 양육권을 상실한다 (ICCPR 제23조, CEDAW 제16조)
- 비이슬람교 종교 자료를 나누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 (ICCPR 제18, 19조)
- 여성 기독교 개종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이유로 강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인질로 잡힌다 (ICCPR 제9, 12조, CEDAW 제15조)

## 다른 소수 종교들의 상황

예멘에서 인권 침해를 겪는 다른 소수 종교는 바하이교와 유대교를 포함한다. 극단적인 무슬림들은 바하이교를 신앙심 없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차별을 당한다. 그들은 주로 후티 관계자들에 의해 투옥되고 고문당할 수 있다. 그들은 신앙을 버리도록 압박에 직면하기도 한다. 주로 수도에 기반을 둔 아주 작은 유대교 공동체는 후티 반군에 의해 적으로 간주된다. 후티는 수니파 이슬람교도들의 자유에도 제약을 부과한다.



## 오픈도어의 예멘 사역

오픈도어는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 및 훈련을 준비하며 예멘의 기독교인들을 돕는다. 또한 오픈도어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배부한다. 오픈도어는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피난처와 보호를 제공하며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친척들에게 훈련과 생계수단을 제공한다.



## 북한선교현장

김서윤 전도사

#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5)

그러는 가운데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고 해가 바뀔 즈음이 되었다. 여전히 밤마다 강변을 살피기를 반복한 우리 가족에게 드디어 결전의 날이 오고야 말았다. 그 날도 아침부터 온종일 끼니를 거르고 허기진 상태였지만 밤하늘에 뜬 달은 밝고 환하게 빛났다. 이곳은 시골이라 그런지 해산만큼 군인들이 많지 않았고 보초를 서는 군인들도 경계가 조금은 느슨한 편이었다. 지금이 아니면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신 어머니는 우리 삼남매를 붙잡고 비장한 얼굴로 말씀하셨다. "서윤이는 지금부터 엄마 말을 명심해 들어라. 지금부터 네가 먼저 강둑 밑으로 내려가서 짐을 받고 그다음 동생들을 받으렴. 마지막으로 내가 내려갈게."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는 나를 강둑 밑으로 보냈다. 순간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떨어졌다. 아파할 사이도 없이 동생들이 후드득 내려 오는 걸 받아야 했고 짐도 연달아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내려오셨다. 어머니는 몸을 낮추어 주변을 살피시고는 조용히 우리에게 "하나, 둘, 셋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기 보이는 산까지 뛰는 것이야. 그리고 혹시라도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라고 하셨다. 우리 남매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구령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길을 헤치며 달렸다. 뒤에서 누가 내 목덜미를 잡을 것 같은 오싹함에 걸음아 나살려라 하는

마음으로 앞만 보고 달렸다. 하지만 무릎까지 쌓여 있는 눈을 가로지르다 보니 달린다는 표현이 무색하게 우리는 네 발로 기어가는 꼴이 되었다. 누군가 이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은 목숨이었다. 그 추운 밤 그렇게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이마에서 땀이 후드득 떨어졌고 몇 겹씩 껴입은 옷이 젖어 들었다. 그렇게 한참을 기어 가다 누가 불세라 산 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침 내 강을 건넨 것이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우리들의 눈썹에는 눈꽃이 새하얗게 피어있었다.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어머니는 우리의 신분을 들킬만한 모든 증거물을 즉시 태우셨다. 불타는 증서들을 보며 나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다시는 내 단짝 친구 영희도, 그리운 아버지도 만날 수 없겠구나.' 차가운 눈바람이 칼날처럼 매섭게 불었지만 내 볼 위로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중국으로 넘어온 그날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실 새 없이 터지던 폭죽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 중국에서는 풍습에 따라 춘절(음력설)을 기념하여 폭죽을 밤새 터트렸다. 어느새 집을 떠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해가 바뀌고 음력설을 맞은 것이다. 사방에서 들리

는 폭죽소리는 너무나 공포스러웠다. 더 괴로운 것은 폭죽이 터지고 난 뒤의 화약 냄새였다. 그 냄새가 어찌나 고약한지 하루 종일 굶은 빈속이었는데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그렇게 폭죽 터지는 소리와 구역질나는 냄새, 여기저기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우리는 중국 땅에 입성하였다.

영겁결에 중국 땅에 왔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막막했다. 땀으로 범벅되었던 몸은 영하 30도가 넘는 날씨에 금세 동태처럼 얼어붙었고, 피곤함과 배고픔이 더해지면서 생각마저 얼어 붙는 것 같았다. 그나마 배고픔은 참는다고 하지만, 이 추운 날씨에 피곤은 이길 수 없었던 우리는 마침 인적이 없는 한 초막을 발견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라고는 없는 그 초막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스르르 달콤한 잠에 빠졌다. 얼마나 잤을까...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눈을 떠 보니 자고 있는 우리 가족을 보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떼로 몰려오고 있었다. 어서 도망가야 한다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이 싹 달아났다. 멀리서 봐도 좋은 의도로 우리를 쫓는 것은 아닌 듯 보였다. 우리는 잡히지 않으려고 험레벌떡 도망갔다. 한참을 달렸지만 그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끝까지 따라왔다. 우리를 잡으려고 쫓는 것이 확실했다. 우리는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더 깊은 산 속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한참을 도망치고 나서야 우리를 쫓던 인기척이 잦아들었다. 숨차고 놀란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다. 언제라도 다시 잡혀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눈을 피해야 함을 동물적으로 알게 되었다. 낮에는 산 속에 몸을 숨겼다가 밤에만 걸었다. 그렇게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줄지어 걷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소리가 들리면 길 옆 비탈로 나뭇가지를 붙들고 몸을 피했다. 그리고 모든 소리와 불빛이 사라지면 그제야 다시 길가로 기어 올라오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그렇게 산을 하나 넘고 또 마을을 지나고 다시 산을 넘었다. 우리의 여정은 만만치 않았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마땅치 않았고 추위도 큰 난관이었다. 눈발을 헤치며 걷는 동안 발은 꽁꽁 얼어붙었고 매서운 칼바람까지 휘몰아쳤다.

하필 그 날은 눈이 역수로 내렸다. 매서운 눈보라가 휘

몰아쳐 왔다. 눈이 거의 1미터 가량 쌓였는데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지 주변에 마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발은 꽁꽁 얼어 붙어 동상에 걸리기 일보직전이었고, 눈보라 때문에 눈이 떠지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러다가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던 찰나에 건너편 산 중턱에서 조그마한 불빛이 반짝였다. 그 희미한 불빛은 우리 가족에게 실낱같은 희망이었고,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죽게 생긴 일가족을 살려주신 구원의 불빛이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죽을힘을 다해 그 불빛을 향해 갔다. 오두막 안에서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는데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가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 한 참을 문 하나를 두고 우왕좌왕하면서 밖에서 서성거렸다. 그러던 찰나, 문이 열리면서 러시아식 털옷과 털모자를 쓴 할아버지 세 분이 사람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사냥총과 횃불을 들고 나오셨다. 그 모습을 본 우리도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횃불로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신 그분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눈발을 해매는 엄마와 어린 아이 3명이었다. 오밤중에 눈보라가 휘몰아쳐 오도 가도 못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본 그분들은 우리를 딱하게 여기시고 오두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

그 오두막은 산에서 참숯을 만들기 위해 일꾼들이 쉬는 공간이었다. 자그마한 오두막은 참 포근해서 하룻밤 쉬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었다. 덜덜 떨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들은 자신들이 쓰시던 담요를 덮어 주셨다. 우리 가족은 그 담요를 덮고는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그렇게 깊은 단잠을 자고 일어난 우리에게 할아버지들은 중국식 배추절임과 돼지고기를 잘게 다져 넣고 끓인 입쌀 죽을 한 그릇씩 퍼주셨다. 우리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음식에 감탄할 새도 없이 그 뜨거운 죽을 게 눈 감추듯 후루룩 마셨다. 아직도 그때 먹었던 그 죽을 잊을수없다. 다시 찾아보라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 오두막집, 그리고 우리에게 하룻밤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친절을 베푸셨던 할아버지들... 얼마나 감사한지 잊을 수가 없다. 그날 그곳에서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마 얼어 죽었을 것이다.

(계속)

Heart To Heart

#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에 초대합니다.

2024년 10월 8일(화)-10일(목)

## 머스카슬론은 어떤 대회인가요?

대회를 홍보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다. 올해 세번째로 열리기에, 머스카슬론이란 이름이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여전히 생소하기만 하다. 머스카슬론은 원래 크리스찬 남성운동을 주도해온 4M이 전세계 인권신장과 재정적 지원을 목표로 아프리카, 중동, 북한 등지에서 기획한 극한 스포츠 이벤트의 일종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머스카슬론은 북한에서 고통 당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온 몸으로 체득하기 위하여 철원, 연천 등에서 진행된다. 매년 네델란드에서 오는 참가자들은 1만 유로(한화 1천5백만원 상당)를 모금해 참석한다. 이 모금액이 참가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궁금했던 필자는 첫번째 준비 미팅에서 이 질문을 던졌다.

“네델란드인에게도 1만 유로는 물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참가자들은 매년 기도하며 이 행사에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교회, 직장, 학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자기만의 독특한 이벤트를 통해 모금을 시작하고 기도요청을 하지만 결코 쉬운 임무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 형제의 간증을 들려주었다.



## 3분의 기적

머스카슬론에 간절히 참석하고 싶었던 한 형제는 기도하며 열심히 모금했지만 1,000유로도 모금하지 못하고 절망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머스카슬론 참석에 진심이었던 형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축구클럽 구단주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구단주는 이 형제의 간절함에 감동이 되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박해 받는 교회를 향한 형제의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축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보세요.”

3분의 시간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형제의 호소를 들은 관중들은 즉석에서 핸드폰을 꺼내 형제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유로가 차고 넘쳤습니다. 머스카슬론은 단순한 극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신앙의 여정(딤후4:7)입니다.

## 머스카슬론의 영성

이러한 영성을 가진 40명의 네델란드인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남북의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 한국 땅을

찾아옵니다. 각자 체험한 신앙이 서로 다르지만 북한 지하교회를 향한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의 자리에 한국청년들을 초대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사상을 초월하여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은혜(엡4:3)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1회 참가자 마리엔 론덴버그는 그 때의 감동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DMZ 가까이에서 달렸는데, 달리면서 북한 지하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단지 우리가 달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무언가 바꾸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행함으로 인해 그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달립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나 함께 달립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와 복음적 평화통일의 그 날을 위하여...

## 대회개요

**날짜:** 2024년 10월 8일(화)-10일(목)

**장소:** 철원, 연천 고대산 캠핑 리조트

**모집:** 모금 참가자 10명, 일반 참가자 20명, 탈북 청소년 20명

**참가비:** 모금참가자 100만원, 일반 참가자 30만원, 탈북 청소년 무료

**일정:** 철원 백마고지/노동당사/소이산 땅밟기 기도/익스트림 스포츠

**종목:** 산악자전거, 산악 마라톤, 산악 하이킹

**신청:** 온라인 접수

1차마감: 2024년 8월 2일(금) 오후 5시

2차마감: 2024년 8월 30일(금) 오후 5시

3차마감: 2024년 9월 13일(금) 오후 5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Mission  
Bible  
College

#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 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목회현장,
-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 육프로그램입니다.

##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교재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커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 신한은행 ]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 휴대폰 / 메일 / 카카오톡채널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